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공감역량이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백경화¹, 양영미^{2*}, 조미옥³

¹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백석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³해전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Influence of Critical Thinking and Empathy on Resilience of Senior Nursing Students

Kyoung-Hwa Baek¹, Young-Mi Yang^{2*}, Mi-Ock Cho³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yeongbuk College of Health

²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Baeseok University

³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yeje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비판적 사고 성향과 공감역량이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일개 대학 간호학과 4학년 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19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기술통계, t-test,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으로 통계처리하였다. 연구결과 비판적 사고 성향($r=.79, p<.001$)과 공감역량($r=.73, p<.001$)은 회복 탄력성과의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비판적 사고 성향과 공감역량은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회복 탄력성을 70.3% 설명하였다($F=276.765, p<.001$).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사고와 공감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내적 요인 강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비판적 사고, 공감, 회복 탄력성, 간호역량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and empathy on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34 nursing students in the 4th grade an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3 to 19, 2019. Data was process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method. As a result of the study, critical thinking and empathy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resilience. Critical thinking and empathy were factors that influence the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and the resilience was explained as 70.3%.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it is considered that an education program that strengthens internal factors can cultivate critical thinking and empathy skills is necessary.

Key Words : Nursing Student, Critical Thinking, Empathy, Resilience, Clinical Competenc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회복 탄력성은 스트레스 관련 상황이나 부정적인 사

건과 같은 역경 속에서 적절히 반응하여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며[1], 개인이 어려움을 지각하고 보호적 요소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다[2].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힘든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Corresponding Author : Young-Mi Yang(debora69@bu.ac.kr)

Received May 27, 2021
Accepted July 20, 2021

Revised July 2, 2021
Published July 28, 2021

노출을 통해서 오히려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3]. 간호대학생들은 과중한 학업 뿐 아니라 실습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죽음 과정에 대한 경험, 다양한 생활양식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 전염성 질환의 접촉 등과 같은 상황에 노출되는 과정 속에서[4], 이론과 실무의 괴리감, 역할갈등,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게 된다.

간호대학생에게 회복 탄력성은 스트레스와 같은 힘든 상황을 성공적으로 조율하는 개인적인 발달과정이며, 회복 탄력성에 의해 축적된 성공 경험은 간호대학생의 대처능력과 안녕감을 증진시킨다[5]. 이는 졸업 후 간호사의 경력 지속성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으므로[6],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은 우울이나 소진, 스트레스가 낮았고[7,8],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져 대학생활적응력, 임상수행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대인관계의 유연성이 높다고 하였다[9,10]. 그러므로 회복 탄력성은 간호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적응과 다양한 간호 실무역량을 습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은 이론적 근거와 현장의 실제적 실무능력을 통합하여 전문직에 합당한 사고과정을 개발하고 지식체와 간호기술을 통합하여 간호의 핵심역량을 발휘하여야 하는데[11]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간호사의 핵심역량 중 하나는 비판적 사고능력이다[12]. 비판적 사고능력은 귀납적 또는 연역적 방법으로 견해를 옹호하고 분석하여 비판하는 능력으로 지식과 믿음에 대한 명백한 진술을 끌어내는 건전한 추론을 기반으로 사실이나 판단에 입각한 결론을 도출하게 한다[13].

간호현장에서의 비판적 사고 성향은 대상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최선의 목표를 세우고 임상적 판단이나 결정을 하기 위해 전략적 근거를 찾는 지적 사고과정이 되며[14], 학습자가 의사결정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분석하여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회복탄력성의 보호적인 요소로서의 기능을 가진다[15].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 성향과 간호사의 회복탄력성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16],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실습교육은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능력을 강화하였는데, 비판적 사고 성향이 강한

간호대학생은 전공만족도와 실습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져 회복탄력성이 향상되었다[17]. 성과기반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단계별 역량기반 이론교육과 다양한 현장에서의 실습교육은 학습자가 비판적 사고 성향을 획득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회복 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공감은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측면에서의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실무현장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대상자들과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간호를 제공하는 데 기초가 된다[18].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기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감역량은 대상자와 그들의 가족 그리고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라 하겠다. 간호사의 공감적 이해는 대상자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 간호사의 스트레스와 소진을 감소시켰으며, 간호사의 공감수준이 높으면 직무만족도가 높으며 이직의도가 낮아져[19]. 임상현장에 대한 적응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Mathad 등은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공감역량은 회복 탄력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며[20], 보건계열 대학생의 회복 탄력성의 주요 예측인자로 공감역량이 확인된 바[21],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회복 탄력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회복 탄력성과 특정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본 연구[7, 9, 20-21]와 회복 탄력성을 매개변수로 사용하거나 회복 탄력성이 특정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8, 10-11]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특정변수가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경제적인 자원, 가족 및 지역사회 도움 등 외적인 요소 이외에도 개인의 특성이나 자기 기술 등과 같은 내적인 요소를 포함한다[22]. 특히나 간호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회복 탄력성의 개념은 각 구성원이 내적인 요소를 가지고 적극적인 동참을 실현하면서 강화되므로[23] 인지적 노력, 비판적 사고와 반영, 건설적 강인함, 공감 등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인 내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와 개인의 능동적인 내적 요인들이 회복 탄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 전공과목과 실습과목의 학습을 경험한 졸업학년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

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공감역량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비판적 사고 성향과 공감역량이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적 요인 강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졸업년도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공감역량이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함이며,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 공감역량, 회복 탄력성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 공감역량, 회복 탄력성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 공감역량, 회복 탄력성간의 상관성을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공감역량이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성향, 공감역량이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하는 G대학교의 간호학과 4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편의표집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19일까지 진행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자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243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G*power 3.1.9.2 프로그램[24]을 사용하였으며 효과 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5일 때 회귀분석에 필요한 대상자의 수는 228명으로 산출되었으며, 분석단계에서 응답이 불충분한 9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34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비판적 사고 성향

Yoon[25]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비판적 사고 성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7개 하위영역은 신중성의 4문항, 지적열정 및 호기심의 5문항, 자신감의 4문항, 체계성의 3문항, 지적 공정성의 4문항, 건전한 회의성의 4문항, 객관성의 3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점은 27~13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2.3.2 공감역량

Lee[26]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공감역량 도구를 연구자가 간호대학생의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2개의 문항, 5점 Likert 척도로 총점 12~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3.3 회복 탄력성

Yang 등[27]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4개 문항으로 7개 하위영역은 자신감 요인의 3문항, 관계성 요인의 4문항, 긍정성 요인의 4문항, 대처능력의 2문항, 사회적지지 요인의 4문항, 감정조절능력 요인의 4문항, 조직적 스타일의 3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점은 24~1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 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자료는 SPSS WIN 22.0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성향, 공감역량과 회복 탄력성 정도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수업관련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 공감역량 및 회복 탄력성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Tukey와 Dunnett로 분석하였다. 비판적 사고 성향, 공감역량, 회복 탄력성 상관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2.67 ± 1.86 세이었으며, 여자가 85.0%, 남자가 15.0%였다. 학과선택 이유는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서 71.8%,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24.4%, 기타가 3.8% 순이었다. 학과 선택은 자신의 의지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가 71.0%였고, 교우관계는 96.6%가 우호적이었으며,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89.7%이었다. 대상자의 68.8%는 강의식의 학습법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전 학기까지의 평균성적은 3.0~3.9가 81.1%이었으며, 2.9 이하가 8.6%였고, 4.0 이상이 10.3%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변수의 정도는 비판적 사고 성향은 3.62 ± 0.59 점이었으며, 공감역량은 3.97 ± 0.46 점, 회복 탄력성은 3.63 ± 0.44 점이었으며,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3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pm SD) (%)
Age (yr)		22.67 \pm 1.86
Gender	Female	199(85.0)
	Male	35(15.0)
Reason for choosing a department	Consider aptitude and hobbies	57(24.4)
	Employment after graduation	168(71.8)
	Others	9(3.8)
Degree of self-will when selecting a department	Recommend of others	166(71.0)
	One's own will	68(29.0)
Relationships with peer	Fair	8(3.4)
	Good	226(96.6)
Satisfaction with nursing department	Satisfied	210(89.7)
	Dissatisfied	24(10.3)
Preferred learning method	Lecture	161(68.8)
	Discussion/Debate	14(6.0)
	Question&answer	14(6.0)
	Hands-on training	45(19.2)
School grades	less than 2.5	2(0.9)
	2.5-2.9	18(7.7)
	3.0-3.4	80(34.1)
	3.5-3.9	110(47.0)
	4.0 or higher	24(10.3)
Critical thinking		3.62 \pm 0.59
Compassionate competence		3.97 \pm 0.46
Resilience		3.63 \pm 0.44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수업관련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 공감역량 및 회복 탄력성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수업관련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 공감역량 및 회복 탄력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비판적 사고 성향을 살펴보면, 선택이유($F=4.932, p=.008$)와 선호하는 학습법($F=2.810, p=.040$)에서 차이가 있었고, 교우관계($F=12.017, p=.000$), 학과만족도($t=2.047, p=.042$)에서 성향이 높았다. 사후분석 결과, 취업보다 적성을 고려한 집단이, 교우관계는 '매우좋다' 집단이 '좋은 편이다' 집단보다, 강의보다 토론을 선호하는 집단이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았다. 공감역량은 선택이유($F=7.346, p=.001$)가 차이가 있었고, 학과선택 본인의지($F=5.198, p=.006$), 교우관계($F=16.701, p=.000$)에서 성향이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취업보다 적성을 고려한 집단이, 타인보다는 본인이 학과를 선택한 집단이, 교우관계는 '매우좋다' 집단이 '좋은 편이다' 집단보다 공감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 탄력성은 선택이유($F=6.673, p=.002$), 학과선택 본인의지($F=7.769, p=.001$), 교우관계($F=19.640, p=.000$), 학과만족도($t=2.682, p=.008$)에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취업보다 적성을 고려한 집단이, 타인보다 본인이 학과를 선택한 집단이, 교우관계는 '매우좋다' 집단이 '좋은 편이다' 집단보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3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성향, 공감역량과 회복 탄력성 간의 상관관계

회복 탄력성은 비판적 사고 성향과 양의 상관성이 있었으며($r=.79, p<.001$), 공감역량도 양의 상관성이 있었다($r=.73, p<.001$). 비판적 사고 성향과 공감역량은 유의한 양의 상관성이 있었으며($r=.65, p<.001$), 다음 Table 3와 같다.

Table 2. Differences of Critical thinking, Compassionate competence, and Resil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lass-related Characteristics (N=234)

Characteristic	Categories	Critical thinking		Compassionate competence		Resilience	
		M(SD)	F or t(p)	M(SD)	F or t(p)	M(SD)	F or t(p)
Gender	Female	97.80(12.13)	-.450(.655)	47.75(7.80)	-.770(.442)	86.94(12.58)	.278(.781)
	Male	96.83(11.69)		46.69(5.75)		87.57(11.13)	
Reason for choosing a department	Consider aptitude and hobbies ^a	101.91(11.26)	4.932(.008)** a>b	50.77(6.41)	7.346(.001)** a>b	92.09(12.08)	6.673(.002)** a>b
	Employment after graduation ^b	96.36(12.04)		46.65(7.54)		85.48(11.97)	
	Others	94.89(11.91)		44.89(8.87)		84.00(14.00)	
Degree of self-will when selecting a department	Recommend of others ^a	95.96(15.34)	1.626(.199)	45.79(7.90)	5.198(.006)* a,b<c	85.38(14.84)	7.769(.001)* a<b
	Mixed type ^b	96.90(11.31)		46.75(7.18)		85.00(10.86)	
	One's own will ^c	99.82(12.15)		49.99(7.66)		91.87(13.19)	
Relationships with peer	Fair ^c	96.50(13.41)	12.017(.000)** a<b	45.75(9.75)	16.701(.000)** a<b	81.88(18.49)	19.640(.000)** a,b<c
	Good ^a	95.00(10.67)		45.72(6.93)		83.85(10.61)	
	Very good ^b	102.91(12.83)		51.40(7.04)		93.73(12.23)	
Satisfaction with nursing department	Satisfied ^a	98.20(12.02)	2.047(.042)* a>b	47.90(7.44)	1.846(.066)	87.76(12.01)	2.682(.008)** a>b
	Dissatisfied ^b	92.92(11.42)		44.92(7.91)		80.71(13.76)	
Preferred learning method	Lecture ^a	96.43(11.99)	2.810(.040)* a<b	47.26(7.47)	1.115(.344)	86.13(12.10)	1.615(.187)
	Discussion/Debate ^b	105.29(13.43)		50.93(8.48)		92.79(14.96)	
	Question&answer	99.71(6.87)		46.79(8.25)		86.21(12.61)	
	Hands-on training	99.00(12.30)		47.98(7.18)		88.73(12.12)	
School grades	Less than 2.5	91.00(2.83)	1.083(.366)	44.50(.71)	1.169(.325)	75.00(5.66)	1.856(.119)
	2.5-2.9	94.94(10.50)		48.61(11.25)		83.33(13.38)	
	3.0-3.4	96.20(12.48)		46.21(7.13)		85.51(12.90)	
	3.5-3.9	98.96(11.93)		48.39(7.17)		88.31(11.76)	
	4.0 or higher	99.08(12.29)		48.00(7.14)		90.04(11.76)	

*p<.05; **p<.01

Table 3. Correlation among Critical thinking, Compassionate competence and Resilience (N=234)

	Critical thinking	Compassionate competence	Resilience
Critical thinking	1		
Compassionate competence	.65(<.001)**	1	
Resilience	.79(<.001)**	.73(<.001)**	1

*p<.05; **p<.01

3.4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공감역량이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공감역량이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비판적 사고 성향과 공감역량을 독립변수로 투입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회귀모형분석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은 2.078으로 2에 가까우므로 독립변수들 간의 독립성을 만족하였다. 공차의 한계값(tolerance)은 0.15~

0.85로 0.1 이상이였으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3~7.80으로 10 미만이므로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비판적 사고 성향($\beta=.541, p=.000$)과 공감역량($\beta=.380, p=.000$)은 회복 탄력성을 70.3% 설명하였으며, 모델의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76.765, p<.001$).

Table 4. The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Compassionate competence on Resilience (N=234)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3.143	3.653		.860	.391
Critical thinking	.555	.048	.541	11.489	.000**
Compassionate competence	.624	.077	.380	8.066	.000**
AdjR ²	.703				
F(p)	F=276.765(p<.001)				

*p<.05; **p<.01

4. 논의

본 연구는 비판적 사고 성향과 공감역량 및 회복 탄력성이 졸업학년의 간호대학생들에게 있어 상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비판적 사고 성향과 공감역량이 회복 탄력성에 어떠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비판적 사고 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점수 3.62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학년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Kim[28]의 연구에서는 2.96점이었고, 3.4 학년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한 Kim 등[29]의 연구에서는 2.61점으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졸업 직후 신규간호사의 비판적 사고력은 3.61점으로[30] 본 연구와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보였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천적 사고 행위로써 비판적 사고 성향을 동일도구로 연구한 이지윤 등[31]의 연구에서는 3.30점으로 본 연구의 수준보다는 낮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학년일수록,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은 발달한다는 연구결과들을 어느 정도 지지해 주고 있다[17, 28].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이 학과에 대한 적성이나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의 주요 결정인자 중 하나인 비판적 사고는 지식이나 신념과 관련된 모호한 진술들을 논리적 추론을 근거로 어떠한 사실이나 판단적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능력이 다[32]. 체계적인 교육과정이나 훈련과정에서 학습목표와 동기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비판적 사고는 길러진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 간호학을 선택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습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특성이 있을 것이므로[17] 비판적 사고 성향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비판적 사고는 추측하기 보다는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사고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객관적 태도가 중요하다. 이는 간호상황에서 요구되는 근거중심의 사고와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추론과정을 생생해 나가는 역동적 과정 속에서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은 5점 만점 중 3.97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

호학과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33]의 3.88 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비폭력대화 방식의 공감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34]의 3.52점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와 의료진 간의 관계에서 공감적 이해와 표현은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승효과를 보이고 [19] 간호사의 임상 수행 능력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0]. 상대방의 감정을 인지하고 공유하며, 상대방의 역할을 대신해 보고 이를 적절히 반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을수록 공감역량은 훈련되어 향상될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들이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지속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공감역량은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중 자기결정에 기반한 학과 선택과 우호적 교우관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대학생들의 공감역량은 체계적인 간호교육과정을 통해 학습된 인지적 반응으로 획득되므로[20] 교내실습과 현장학습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체험하여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공감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며 학습자별 공감요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공감 중심 학습을 교육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은 5점 만점 중 3.63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도구를 사용한 Park 등[35]의 연구에서는 3.60점, 회복 탄력성이 임상실습 적응에 미치는 정도를 연구한 Baek 등[36]의 연구에서는 3.54점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회복 탄력성과 간호업무성과를 조사한 연구[37]에서는 회복 탄력성이 3.02점으로,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직사회화를 조사한 연구[38]에서는 회복 탄력성이 3.08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본 연구결과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여,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 점수보다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회복 탄력성은 자기결정에 기반한 학과 선택과 우호적 교우관계 및 학과 만족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 긍정적인 정서를 나누고, 능동적이고 결속력 강한 삶의 태도를 거쳐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5]를 반영해 주고 있는 부분이다. 회복

탄력성이 낮은 간호사는 업무소진이나 이직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에 합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8]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요인들의 효과검증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임상 현장에서 감정을 조절하면서 상황별 문제를 이겨내기 위하여 환경과의 조화로움 속에서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회복 탄력성의 능동적 관련 요인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연계성 프로그램 개발과 이에 대한 추이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중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공감역량은 회복 탄력성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 성향, 공감역량과 회복 탄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Jang[39]의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을수록 회복 탄력성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와, 공감지수가 높을수록 회복 탄력성이 높았다는 연구[21]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회복 탄력성의 긍정적 보호요인으로서 인지적 능력은 회복 탄력성과 관련이 있었으며[40], 통합적인 비판적 사고수업은 학습자의 스트레스 관리 기술과 회복 탄력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학업수행, 역량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32]. 간호업무는 정보를 조직화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간호문제를 도출하여 수행과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와 같은 인지적 과정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에서 나오는 공감과정이 공존하여 발생되므로 회복탄력성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공감역량은 회복 탄력성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비판적 사고 성향과 공감역량은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을 70.3%로 설명하고 있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 성향과 공감역량이 회복 탄력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본 연구가 부족하여 논의에 한계점은 있지만, 618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 성향과 극복력의 양적 관련성은 학과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14] 간호대학생의 공감적 관심은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힌 연구결과[39]가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여 준다. 공대생 105명을 대상으로 회복 탄력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입증한 Benitez 등[15]의 연구를 통해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의 강화는 특정 회복 탄력성 기술을 강화시키고, 자신감, 긍정적 상호작용과 능동적 사고에 맞

춘 동기부여는 실습 중 목표성취의 시너지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비판적 사고에 기반한 임상적인 판단을 내리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공감적 이해를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면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 수준은 임상현장에서도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 성향, 공감역량과 회복 탄력성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비판적 사고 성향과 공감역량이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인지를 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34명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은 3.62 ± 0.59 점, 공감역량은 3.97 ± 0.46 점, 회복 탄력성평균점수는 3.63 ± 0.44 점이었다. 비판적 사고 성향과 공감역량 그리고 회복 탄력성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 성향과 공감역량은 회복 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70.3%의 설명력이 이를 입증해 주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비판적 사고와 공감역량을 접목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을 편의 모집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신중해야 할 것이며, 반복연구와 표본을 확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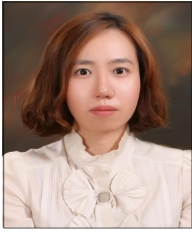
REFERENCES

- [1] M. McAllister & J. B. Lowe. (2011). *Preparing for Practice: Becoming Resilient In: McAllister M, J. B. Lowe, eds. The Resilient Nurse: Empowering Your Practice*.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22.
- [2] G. E. Richardson. (2002). The metatheory of resilience and resiliency. *Journal of Clinical Pathology*, 58(3), 307-321. DOI : 10.1002/jclp.10020.
- [3] G. Manzano & J. C. Ayala-Calvo. (2012). Emotional exhaustion of nursing staff: Influence of emotional annoyance and resilience, *Nursing Forum.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59(1), 101-107. DOI : 10.1111/j.1466-7657.2011.00927.x.

- [4] S. P. Thomas & R. Burk. (2009). Junior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vertical violence during clinical rotations. *Nursing Outlook*, 57(4), 226-231.
DOI : 10.1016/j.outlook.2008.08.004.
- [5] L. J. Thomas & S. H. Revell SH. M. (2016).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An integrative review. *Nurse Education Today*, 36, 457-462.
DOI : 10.1016/j.nedt.2015.10.016.
- [6] T. M. Stephens. (2013). Nursing student resilience: a concept clarification, *Nursing Forum*, 48(2), 125-133.
DOI : 10.1111/nuf.12015.
- [7] Y. E. Lee & Y. N. Jang. (2018). Effects of exposure to violence during clinical practicum, self-esteem and resilience on depress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8), 646-657.
DOI : 10.5392/JKCA.2018.19.09.646.
- [8] N. H. Kim & S. Y. Park. (2019). Effect of burnout and stress coping on resilience of student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4(2), 295-304.
DOI : 10.21097/ksw.2019.05.14.2.295.
- [9] S. Y. Kim. (2018). The influence of self - control and resilience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2(1), 253-262. DOI : 10.21184/jkeia.2018.1.12.1.253.
- [10] H. H. Park & S. Y. Kim (2016).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resili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0(6), 369-378.
DOI : 10.21184/jkeia.2016.12.10.6.369.
- [11] J. S. Won et al. (2016).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Travel Medicine and Global Health*, 4(1), 3-11.
DOI : 10.20286/ijtmgh-04013.
- [12]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KABONE). (2012). The guide book for the accreditation of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5 (Korean).
- [13] A. J. Freely & D. L. Steinberg. (2008). Argumentation and Debate: Critical Thinking for Reasoned Decision Making. In: *Critical Thinking*. Boston : 12th eds. Stanford Wadsworth, 1-7.
- [14] J. S. Kim & S. J. Park. (2018). Relevance of critical thinking, coping power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12), 247-256.
DOI : 10.21742/AJMAHS.2018.12.58.
- [15] L. Benitez & M. Canales. (2013). Critical thinking as a resilience factor in an engineering program. *Creative Education*, 4(9), 611-613.
DOI : 10.4236/ce.201349087.
- [16] K. Y. Kim & E. J. Lee (2016). The relationship am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ing process competency and evidence-based practice competency in nurses working in hospitals, *Journal of Korean Data & Information Society Society*, 27(2), 451-461.
DOI : 10.7465/jkdi.2016.27.2.451.
- [17] J. H. Ahn, J. Y. Kim & E. S. Hwang (2019). The effect of simulation-based education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skill and nursing process confidence in college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7), 187-197.
DOI : 10.35873/ajmahs.2019.9.7.017.
- [18] J. H. Kim. (2018). Factor influencing nursing student' empathy.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30(3), 229-236.
DOI : 10.3946/kjme.2018.97.
- [19] J. H. Choi, S. O. Lee & S. S. Kim.. (2019). The effects of empathy and perceived preceptor's empathy on job satisfactio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of new graduate nurses. *The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 Association*, 19(3), 313-327.
DOI : 10.5392/JKCA.2019.19.03.313.
- [20] M. D. Mathad, B. Pradhan & S. K. Rajesh. (2017). Correlates and Predictors of Resilience among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and Diagnostic Research*, 11(2), 5-8.
DOI : 10.7860/JCDR/2017/24442.9352.
- [21] J. H. Park & B. G. Yoon, (2018). Capability of empathy and resilience among healthcar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22(3), 117-129.
DOI : 10.14408/KJEMS.2018.22.3.117.
- [22] M. J. Garcia-Dia, J. M. DiNapoli, L. Garcia-Ona, R. Jakubowski & D. O'Flaherty. (2013). Concept analysis: Resilience,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27, 264-270.
DOI : 10.1016/j.pnu.2013.07.003.
- [23] P. L. Hart, J. D. Brannan & M. De Chesnay.

- (2014). Resilience in nurses: an integrative review,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22(6), 720-723.
DOI : 1111/j.1365-2834.2012.01485.x.
- [24] F. Faul, E. Erdfelder, A. G. Lang & A. Buchner.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 [25] J. Yoon. (2004).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 [26] Y. J. Lee. (2014). *Development of the compassionate competence scale for nur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27] Y. H. Yang, E. M. Kim, M. Yu, S. M. Park & H. Y. Lee. (2015). Development of the resilience scale for korean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7(3), 337-346.
DOI : 10.7475/kjan.2015.27.3.337.
- [28] E. H. Kim. (2016). A study on the ego 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atisfaction in maj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4(4), 720-729.
DOI : 10.15205/kschs.2016.12.31.720.
- [29] J. S. Kim & S. J. Park (2018). Relevance of critical thinking, coping power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12), 247-256.
DOI : 10.21742/AJMAHS.2018.11.58.
- [30] O. S. Lee & M. J. Kim. (2018).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ew graduate nurses immediately after gradu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6), 307-315.
DOI : 10.14400/JDC.2018.16.6.307.
- [31] J. Y. Lee & S. Y. Pak. (2014). Relationships between the practice envirmnt of nursing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es in local general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Administration*, 20(2), 145-153.
DOI : 10.11111/jkana.2014.20.2.145.
- [32] Z. Kamali. (2011). The relationships between critical thinking ability of iranian EFL learners and their resilience level facing unfamiliar vocabulary items in reading, *Journal of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2(1), 104-111.
DOI : 10.4304/jltr.2.1.
- [33] Y. K. Ko & S. Y. Yu. (2014). The effects of compassionate competence, affectivity and bullying experiences during clinical training on the major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4), 2219-2231.
DOI : 10.37727/jkdas.2017.19.4.2219.
- [34] M. J. Lee, Y. J. Jeong, J. Y. Kang & H. J. Na. (2019). The effects of non-violent communication program on nursing graduate students on empathy, communic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0(2), 425-440.
DOI : 10.22143/HSS21.10.2.31.
- [35] E. M. Park & Y. S. Song. (2018). Predictors of emotional labor and resilience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5(3), 357-365.
DOI : 10.59777/jkasne.2019.25.3.357.
- [36] K. H. Baek & M. O. Cho. (2020). Effect of grit and resilience on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6), 367-371.
DOI : 10.14400/JDC.2020.18.6.363.
- [37] J. E. Han, N. H. Park & J. H. Cho. (2020). Influence of gender role conflict, resilience, and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on nursing work performance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3), 117-129.
DOI : 10.14408/KJEMS.2018.22.3.117.
- [38] E. A. Jo & J. Y. Kang. (2015). Influence of workplace bullying and resilience on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in new graduate nurses,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2(2), 78-86.
DOI : 10.5953/JMJH.2015.22.2.78.
- [39] S. Y. Jang. (2015). The effect of empathy on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22(2), 78-86.
DOI : 10.15715/kjhcom.2017.12.2.211.
- [40] E. K. Ahn. (2019). The trends of research on resilience in korean nursing students: perspective of convergence, *Journal of Korean Convergency Society*, 10(5), 397-405.
DOI : 10.15207/JKCS.2019.10.5.397.

백 경 화(Kyoung-Hwa Baek) [정회원]



- 2015년 2월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8월 ~ 현재 :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부정맥환자 간호, 심혈관질환자 간호, 근거중심간호중재 개발, 간호시뮬레이션

· E-Mail : khbignite@gch.ac.kr

양 영 미(Young-Mi Yang) [정회원]



- 2016년 2월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여성건강, 노인간호, 재활간호
- E-Mail : debora@bu.ac.kr

조 미 옥(Mi-Ock Cho) [정회원]



- 2016년 8월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8년 9월 ~ 현재 : 혜전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조기진통, 조산, 간호교육
- E-Mail : serena@hj.ac.kr